
국내 주요 연구동향 분석



목차

개요	1
주요내용	6
<i>커뮤니티 케어</i> 연구동향 및 주요 논문	6
정신건강 연구동향 및 주요 논문	9
<i>제론테크놀로지</i> 연구동향 및 주요 논문	13
ANNEX	15

개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거주지에서 진행되는 활동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노인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다.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WHO 연령주의 국제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돌봄, 기술,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에 대한 차별이 팬데믹 이전보다 증가했다. 2022년 통계청은 노인빈곤율이 처음으로 30%대(38.9%)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인 13.5%(2019년 기준)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또한,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고립과 고독에 대한 문제 역시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같은 부정적인 지표들이 감소 추세에 있어 긍정적인 목소리들이 있지만, 여전히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 한국 노인의 현실에 개선의 여지가 많다. 긍정적인 것은 한국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과 시범 사업 및 프로그램 등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OECD, UN을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표준 연구지표들과 여러 해외 연구들을 기반으로 국내 자료들과 비교·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연구의 동향을 정리하여 해외에 소개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2022년부터 한국의 주요 연구 동향을 분기별로 요약·정리하여 국내외 노인인권 관련 연구자들과 현장 전문가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노인 연구의 카테고리는 다양하게 분류된다. 그중 센터는 제론테크놀로지(Gerontechnology),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그리고 정신건강(Mental health)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선별했다. 이유는 해당 분야가 금년 센터의 타 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현재 노인 연구 카테고리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리뷰 형식으로 센터의 주관적 의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한국 노인 관련 연구 트렌드의 동향을 소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리뷰를 통해 연구들의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들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연구 논문보다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주제들을 다룰 수 있으며 해당 내용들을 종합하여 트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2021년 4분기부터 2022년 1분기 국내 노인 관련 연구 동향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제론테크놀로지 관련 연구는 비교적 시작 단계에 있는 반면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가 진행된 커뮤니티 케어와 정신건강 분야는 더욱 세부적이고 미시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1.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검색어 및 연구 개수

키워드	커뮤니티 케어		정신건강		제론테크놀로지		그 외 분야	
하위 검색어	커뮤니티 케어	10	정신건강	19	제론테크놀 로지	0	빈곤	6
	주거	27	치매	21	로봇	6	건강	92
	주택	14	우울	48	스마트홈	3	경제	31
	장기요양	25	자살	7	인공지능	3	장애	29
	돌봄	45	외로움/고 독	8	테크놀로지	0	인권	6
	독거	25	중독	0	첨단기술	0	차별	9
총	146		103		12		173	

※ 총 개수는 중복되는 연구를 모두 포함함

연구 선정 방법 및 기준은 아래와 같다. 2021년 4분기부터 2022년 1분기 사이에 발행된 연구 중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에서 ‘노인’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인용지수(Impact Factor)가 1.00인 이상인 연구는 총 278건이었다(인용지수를 고려하지 않을 시 722건). 62개 국내 학술지의 간행물로, 주요 학술지로는 한국노년학, 노인복지연구, 보건사회연구, 사회복지정책 등이 있다. 해당 278개 연구 중 ‘노인’과 ‘정신건강’을 키워드로 검색했을 경우, 관련 연구는 19건이었고, ‘노인’과 ‘커뮤니티 케어’는 10건, ‘노인’과 ‘제론테크놀로지’는 0건이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정신건강’을 키워드로 검색한다고 해서 모든 정신건강 분야 연구가 검색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건강’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제목이나 본문에 정신건강이 들어가는 연구들만 검색되는데, 정신건강의 주요 분야인 우울, 자살 관련 연구는 검색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분야의 하위 검색어를 추려 검색을 진행했다. 제론테크놀로지의 하위 검색어는 ‘로봇’, ‘스마트홈’, ‘인공지능’, ‘테크놀로지’, ‘첨단기술’ 등이다. 커뮤니티 케어는 ‘주거’, ‘주택’, ‘장기요양’, ‘돌봄’, ‘독거’ 등이다. 정신건강은 ‘치매’, ‘우울’, ‘자살’, ‘외로움’, ‘고독’, ‘중독’ 등이다. 하위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표1에서 표기된 개수의 연구들이 검색되었는데, 이 중에는 겹치는 연구들이 있다. 제목이나 내용에 하위 검색어가 여러 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연구의 제목이 ‘무엇이 노인의 삶을 더욱 불만족스럽게 만드는가?: 주거와 돌봄의 이중결핍의 영향’인 경우, ‘주거’와 ‘돌봄’ 분류에 모두 포함된다. 표1은 중복되는 연구를 배제하지 않고 모두 포함한 숫자이다.

센터에서 선택한 3가지 카테고리 외에도 노인 관련 다양한 분야가 있다. 그중 센터와 관련이 높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노인 연구를 검색해 본 결과, ‘빈곤’ 관련 연구는 6건, ‘건강’ 관련 연구는 92건, ‘경제’ 관련 연구는 31건, ‘장애’ 관련 연구는 29건, ‘인권’ 관련

연구는 6건, ‘차별’ 관련 연구는 9건이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노인 관련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노인의 건강이라는 것이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모두 포괄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관심도가 높은데,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인 빈곤 연구(6/278, 2%)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5년부터 매년 50개가 넘는 노인 빈곤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2021년 39개로 줄었고, 2022년 1분기에는 6개로 더욱 줄어드는 추세이다. 기존 이미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노인과 관련된 다른 분야의 연구들이 학계에서 좀 더 주목받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검색된 연구 중 4개의 제론테크놀로지 분야, 5개의 커뮤니티 케어 분야, 그리고 7개의 정신건강 분야 연구를 선정하여 소개한다. 선정된 3가지 분야의 총 16개 연구 중 13개 연구(80%)는 최근 10년 동안 노인 관련 연구가 100개 이상 발행된 학술지에서 선별했다. 나머지 3개 연구(20%)는 주요 학술지는 아니지만 각 주제와 관련이 높고 희소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제로 선정했다. 선정된 연구목록은 아래 표2에서 볼 수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은 Annex에 첨부하였다.

표2. 분야별 연구목록

분야	연구목록
커뮤니티 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종근, 이한기, 이서윤, & 왕영민. (2021). 노인장기요양 공급 특성이 수요 유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선형패널분석을 통한 공급자의 수요자 발굴 현상 분석을 중심으로. <i>보건사회연구</i>, 41(4), 8-25. · 채지은, & 서영준.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 전·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형평성 분석. · 최해룡. (2021). 고령자의 지역사회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가활동과 건강상태의 순차적 매개효과. <i>노인복지연구</i>, 76(4), 81-106. · 민소영, 임선영, 주은선, & 신서우. (2021). 무엇이 노인의 삶을 더욱 불만족스럽게 만드는가?: 주거와 돌봄의 이중결핍의 영향. <i>사회과학연구</i>, 60(2), 133-154. · 이송희, & 홍승주. (2021). 서울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영국 NHS 통합돌봄 모델과의 비교. <i>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i>, 41, 147-178.
정신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경순, & 이유진. (2022). 자녀동거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와 독거노인가구의 우울 영향요인 조사: 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 이용. <i>노인간호학회지</i>, 24(1), 1-12. · 정유수, 권소연, & 이영순. (2021). 베이비붐 세대의 활동적 노화가 우울, 삶의 만족도, 죽음불안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i>노인복지연구</i>, 76(4), 9-33. · 최해경. (2021). 부부갈등과 자녀와의 갈등이 노인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비교. <i>미래사회복지연구</i>, 12, 75-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동훈. (2022).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제한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 도움과 요양보호사 도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i>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i>, 22(1), 545-556. · 이태호, & 허순임. (2021). 사회자본이 노인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i>보건사회연구</i>, 41(4), 128-146. · 김자영. (2021). 노인의 노화불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i>한국노년학</i>, 41(6), 1055-1072. · 장의미, & 김기연. (2021). 한국 당뇨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정신건강의 관계: 주관적 계층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i>사회과학연구</i>, 32(4), 121-144.
<p style="text-align: center;">제론테크놀로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설미, & 최송식. (2021). 노인의 디지털 정보수준이 신기술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 자기효능감과 이용성과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i>노인복지연구</i>, 70(4), 137-170. · 최봄이, & 전해정. (2021). 노인의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 관련 요인. <i>한국노년학</i>, 41, 825-841. · 백옥미, 홍석호, 이미영, & 장은하. (2021). 농촌 독거노인의 스마트 홈 활용 경험. <i>보건사회연구</i>, 41(4), 108-127. · 김연미, 송미영, 양정숙, & 나현미. (2022). AI 로봇 통합관리프로그램이 재가노인의 인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우울에 미치는 효과. <i>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i>, 20(2), 511-523.

커뮤니티 케어는 제론테크놀로지보다 크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이다. 즉,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개념이다. 비록 노후에 요양시설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증가하기는 했지만, 2020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현재 사는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살고자 하는 노인들이 전체의 56.5%로 과반수를 넘는다. 한국에서 커뮤니티 케어 연구는 2010년대 들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복지관, 요양시설, 학계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며 노인인권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야이다. 이번 글은 커뮤니티 케어 관련 연구 중 장기요양보험 관련 연구(서종근, 이한기, 이서윤, & 왕영민(2021); 채지은, & 서영준(2022)),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연구(최해룡(2021)), 주거에 대한 연구(민소영, 임선영, 주은선, & 신서우(2021)), 해외 커뮤니티 케어 사업과 국내 비교연구(이송희, & 홍승주(2021))를 소개한다.

정신건강 관련 노인 연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울증이다. 노년기의 우울증의 임상양상과 치료는 젊은 세대와 차이가 있는데, 우울감을 덜 호소하는 반면 신체증상 및 기억저하 호소가 심하고 초조 증상을 흔히 보인다(유승호, 2014). 우울증은 약물치료로 완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노인들에게는 항우울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치료에 소극적이다보니 문제가 극단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우울증은 자살,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불안증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 글에서는 노인 우울에 관한 연구(윤경순, & 이유진(2022); 정유수(2021)), 가족 간 갈등에 관한 연구(최해경(2021)), 신체적 건강과 우울증의 관계 연구(강동훈(2022)), 노인자살에 관한 연구(이태호, & 허순임(2021)), 그 외 노화불안(김자영(2021)), 주관적 건강상태와 정신건강의 관계 연구(장의미, & 김기연(2021))를 소개한다.

제론테크놀로지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하며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환경의 디자인이라고 정의된다(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2021).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신의 집에서 나이들기를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대변하여 이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사업,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제론테크놀로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리포트에서 소개할 제론테크놀로지 관련 연구는 노인의 첨단기술 사용 의사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오설미 & 최송식(2021); 주수산나, 최봄이, & 전해정(2021)), 스마트 홈 관련 연구(백옥미, 홍석호, 이미영, & 장은하(2021)),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관련 연구(김연미, 송미영, 양정숙, & 나현미(2022))이다.

본 글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국내외 학술지 검색 사이트를 모두 포괄하여 검색한 것이 아니라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국내 모든 연구를 포괄하지 못할 수 있다. 두 번째, 노인 관련 분야에는 센터가 선택한 세 가지 분야인 제론테크놀로지, 커뮤니티 케어,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빈곤, 고용, 건강 등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지만, 이를 모두 포괄하여 소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 리포트는 그동안 많이 시도되지 않았던 국내 연구 동향을 국내외에 소개한다는 시도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센터는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다양한 국내 연구 동향을 소개할 것이다.

주요내용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연구동향 및 주요 논문

2021년 발행된 정부 통계 지표인 2020 노인실태조사와 2021 고령자통계를 보면, 한국의 고령자 인구 증가 추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볼 수 있다. 2047년에는 한국 전체 가구의 약 절반이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고, 독거가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향후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출 증가 및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자살, 그리고 정신건강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전히 자신의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싶다는 노인들이 많았다. 위에서 언급한 지표들은 ‘자신의 집에서 나이들기’라는 개념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한국에서는 더 뚜렷하게 정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커뮤니티 케어는 단순히 자신의 집에서 죽을 때까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존엄성 있는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한다. 즉,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가족 해체 현상이 가속화되어가는 현재, 이들이 외로움의 고통에서 벗어나 이나 고독에 시달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며 행복하게 자신의 집에서 나이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국내 연구 동향 역시,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센터에서 선택한 3개 분야 중 가장 많은 연구가 검색되었다. 그중에서 돌봄과 장기요양 등의 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따라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 케어 관련 연구들은 단순히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보다는 제도 내부적인 이슈인 사업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분석 등과 관련된 보다 미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한국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은 장기요양보험으로 2008년 도입 이후로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한국인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5대 보험 중 하나로 성공적으로 자리잡았고, 현재 관련 연구들은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측면의 분석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주제들인 지역 별 비교, 장기요양보험 관련 수혜자에 대한 연구 등으로 더욱 세밀화되었다. 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커뮤니티 케어라는 맥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거이다. 주거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 지역사회 환경, 주거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아래에서는 이번 분기에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연구들에 대해 소개한다.

서종근, 이한기, 이서윤, & 왕영민(2021)은 장기요양보험의 공급 특성이 서비스 수요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군구 데이터 10년(2010~2019년)에 기반하여 선형패널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시군구별 공급 특성과 장기요양 대상자로 신청 후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되는 것(인정신청) 간 밀접한 관계가 관찰되었다. 매년 지역별 공급 기관 총량에 따라 인정신청 건수가 동일한 양상으로 조절되었다. 그리고, 공급 특성에 따라 인정신청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65세 인구와 별개로, 시군구별 재가 기관 공급량이 인정신청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입소 시설은 인정신청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기관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인원이 인정신청 증가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2018년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감경제도가 기존의 소득분위 25% 이하(5% 단위로 나누어 1~5분위)에게 본인부담금 50% 감경에서 소득분위 1~25%까지는 60% 감경, 소득분위 26~50%(6~10분위)까지는 40% 감경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채지은, & 서영준(2022)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를 대상으로 2018년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 전·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감경확대 정책의 효과성을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2017년과 2019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청구자료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하여 2017년 184,355명, 2019년 285,104명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감경 확대 후 새롭게 감경대상자로 추가된 소득분위 6~10분위에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모두 이용량과 본인부담금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감경 대상자인 1~5분위는 일부 분위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6~10분위는 감경 확대 이후 본인부담금의 40%를 새롭게 감경받게 되었으나 1~5분위는 기존 50% 감경에서 10%만 증가한 60%의 감경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6~10분위에 비해 모든 분위에서 감경 확대 전·후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수평적 형평성 분석 결과,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이용일수와 횟수 모두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던 이용량이 감경 확대 후 형평적으로 변화하였고, 본인부담금 또한 고소득층의 부담이 감소하며 형평에 맞은 결과를 나타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연구 외에도 지역사회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 최해룡(2021)은 고령자의 지역사회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가활동과 건강상태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여가활동을 경험한 고령자 7,957명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 지역사회환경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여가활동의 매개효과(지역사회환경 → 여가활동 →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환경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건강상태의 매개효과(지역사회환경 → 건강상태 →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환경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여가활동과 건강상태의 순차적 매개효과(지역사회환경 → 여가활동 → 건강상태 → 삶의 만

족도)의 순차적 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환경이 여가활동과 건강상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은 자신의 거주지, 즉 주거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노인의 주거에 대한 연구는 2021년 4분기부터 2022년 1분기에 수십편이 발행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그중 커뮤니티 케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민소영, 임선영, 주은선, & 신서우(2021)는 주거와 돌봄의 이중결핍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수행된 지역주민욕구조사 자료 중 65세 이상 노인 464명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했다. 연구 결과, 돌봄결핍보다 걱정하지 못한 주거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했고, 돌봄과 주거의 이중결핍은 제한적 수준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결핍이 돌봄결핍 이상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노인이 필요로 하는 돌봄을 적절한 주거환경 속에서 제공받도록 하는 통합적인 노인생활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커뮤니티 케어의 세부 카테고리들을 분류하고 분석한 연구들도 있지만, 해외 커뮤니티 케어 모델과 한국의 모델을 비교한 연구도 있었다. 이송희와 홍승주(2021)는 서울형 커뮤니티케어인 서울 돌봄SOS센터 시행에 따라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HS)의 새로운 통합 돌봄 모델인 '뉴케어모델(New Care Models)'의 시범지역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서울형 지역사회 통합돌봄모델의 운영매뉴얼 개선 및 사업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영국의 통합돌봄 뉴케어 모델의 시범도시는 토베이 지역인데, 토베이 지역은 '응급환자 대상 서비스와 진료시간 외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통합돌봄' 모델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방향을 지향해야 하고, 다학제간 팀 구성과 민관연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며 통합돌봄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공식적·비공식적 돌봄 종사자 지원 및 관리, 지역주민 및 시민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정신건강(Mental health) 연구동향 및 주요 논문

노인 정신건강 문제는 일차원적으로만 고려되는 사항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가구의 빈곤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 지표를 보면 과거 심각했던 상황에 비해 점차 호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20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2008년 30.8%에서 2020년 13.5%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2021년 고령자통계를 보면 2010년 노인의 사망원인별 사망률의 4순위가 자살(인구 10만 명 당 31.2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5순위(인구 10만 명 당 25.7명)로 내려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과거보다 노인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정신건강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노인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기에, 수치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현재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 관련 연구들의 분석과 다양한 해결책들은 어느 정도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어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통계적 지표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통계적 수치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또한, 통계의 유의미성에 대한 의문점 해소는 이와 관련된 질적 연구의 향상으로 이어졌다. 이번 분기 역시 노인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노인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 중 하나였다. 정신건강 관련 연구는 노인들의 우울증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관련된 문제와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 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체 연구 중 노인의 외로움과 고독과 관련된 연구는 2010년 24개에서 2021년 43개로 증가 추세에 있다. 노인의 우울 관련 연구(임팩트 팩터 고려하지 않은 전체 연구) 역시 2010년 132개에서 2021년 199개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연구의 동향을 보면 현재 국내 학계는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기간동안 한국에서 발행된 정신건강 관련 연구 전부를 다룰 수는 없지만, 선별된 연구들 중 이 글에서 다루는 분야에서 노인의 우울과 자살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경제적 문제로 인해 초래되는 정신건강 문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문제 등이 있었다.

노인 정신건강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분야 중 하나는 우울증이다. 그 중 윤경순과 이유진(2022)은 노인 가구 유형(자녀동거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독거노인가구)에 따른 우울증 영향 요인을 2020년 노인실태조사 만 65세 이상 노인 10,097명 중 동거인을 묻는 문항에 ‘손자·손녀, 형제자매, 부모, 비혈연 동거인’으로 응답한 141명과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자살, 삶의 만족도’에 걸쳐있는 166명을 제외한 총 9,790명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가족구조에 따른 우울증은 독거노인, 성인자

녀 동거 가구, 배우자 동거 가구 순으로 높았다.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우울요인은 총소득, 만성질환 건수, 입원, 운동, 자살생각 등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노인의 우울요인은 취업,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건수, 병원방문, 입원, 음주, 자살생각, 경제적 지위만족도, 문화생활만족도였다. 독거노인의 취업, 주관적 건강상태, 입원, 음주, 자살생각, 문화적 삶의 만족도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다음으로, 정유수 외(2021)는 노인을 세대별로 나누어 우울 정도를 분석했다. 신규 노인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의 활동적 노화가 우울, 삶의 만족도, 죽음 불안 및 자아통합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자료 수집은 ((주) 인바이트 패널에 설문을 의뢰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활동적 노화, 우울, 삶의 만족도, 죽음불안, 자아통합감 척도에 대해 자기보고식 설문을 2021년 5월 10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여 남녀 각 300부씩 총 600부를 회수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활동적 노화의 참여, 건강, 안전요인 모두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활동적 노화의 참여, 건강, 안전요인 모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적 노화의 건강, 안전요인이 죽음 불안에 영향을 주고, 활동적 노화의 참여, 건강, 안전요인 모두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가족 간 갈등은 경제적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용한다. 최해경(2021)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와 옥천군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평생교육기관의 협조를 받아 유의표집으로 표본추출 하였고 65세 이상 유배우자 노인 265명을 대상으로 부부갈등이 노인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노인의 성별에 주목하여 노인의 부부갈등과 우울 간 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성별에 따른 노인 우울 수준을 살펴보면 여성노인의 우울 점수는 2.45, 남성노인의 우울 점수는 3.05로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모두 포함한 다중분석 결과는 남성노인의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부갈등은 남성노인의 우울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여성노인의 우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노인의 우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친구 수와 자기돌봄으로 나타났고, 남성노인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력과 건강상태였다. 즉, 여성노인은 친구 수가 적을수록, 자기돌봄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남성노인은 월 소득이 낮을수록, 신체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건강을 우울증과 연결하여 동시에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강동훈(2022)은 한국복지패널 15차 자료(2020년)를 기반으로, 65세 이상 노인 4,214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제한이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족 및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제한은 노인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제한과 노인의 우울 간에 가족의 도움은 노인의 우울을 완화하는 조절변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제한과 노인의 우울 간에 요양보호사의 도움은 노인의 우울을 완화하는 조절변수로 기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함께 노인 정신건강 분야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자살이다. 자살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OECD 2018년 기준 노인자살률이 100,000명 당 48.6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2년 69.8명에 비해 지속적으로 수치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OECD 내에서 가장 높으며 고령층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인 일본(2018년 18.6%)과 비교해 보아도 거의 2배 이상 높다. 이렇게 심각한 노인의 현실을 배경으로 한국에서도 다양한 노인 자살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자본이 노인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이태호, & 허순임(2021)은 통계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구조적 요인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사회적 자본과 노인자살률의 관계를 250개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사회자본은 전체 연령 자살률에 비해 노인자살률에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고 참여 속성을 나타내는 투표율은 남성과 여성 노인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자살률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남성 노인은 네트워크 변수인 시민단체 종사자 수, 문화여가복지시설 수가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고 여성 노인의 경우는 이혼율이 자살률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성별로 중요한 사회자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역량은 자살률을 낮출 수 있으며,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안전망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자살 이외에도 정신건강 분야는 다양하다. 김자영(2021)은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사회의 사회, 심리적 불안 실태조사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1,055명을 샘플로 추출했다. 그리고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의 노화불안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사회적지지(다양한 사람들이 사회적 환경에서 행동하는 지원적인 방법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Helgeson, 2003))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의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우울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화불안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가 검증되었다.

장희미와 김기연(2021)은 한국 의료패널에서 제공하는 2013년 연간데이터 73명 당노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주관적 건강상태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주관적 계층인식(사회계층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한국 의료패널에서는 1~10 중 자기가 속하는 주관적 계층에 대해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작성했음)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당뇨 노인이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보고할수록 불안 및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뇨 노인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불안 및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계층인식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낮다고 평가한 당뇨 노인이 주관적 계층인식 역시 낮다고 평가할수록 불안 및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했다.

제론테크놀로지(Gerontechnology) 연구동향 및 주요 논문

최근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최신기술을 도입하여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계적 수치로 나타낸 정부 자료는 볼 수 없지만, 한국에서 제론테크놀로지가 지속적으로 널리 상용화되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뉴스나 미디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제론테크놀로지 연구는 비교적 최근인 2010년대 이후부터 KCI에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출간되고 있는데, 이번 리뷰를 통해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새로운 것에 거부반응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노인들의 첨단기술 사용 의사 및 효과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다. 또한, 스마트 홈 역시 제론테크놀로지 관련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연구들에 비해 제론테크놀로지 연구는 비교적 시작 단계에 있으며 향후 더욱 다양한 연구 주제들과 결과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론테크놀로지 연구는 검색된 노인 관련 분야 총 278개 연구 중에서 12개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는 전체 연구의 약 6.7% 정도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론테크놀로지’를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한 개의 연구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제론테크놀로지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상용화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현장에서 돌봄로봇이나 스마트 홈 등과 관련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향후 제론테크놀로지 관련 다양한 분야의 세부적인 연구들이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돌봄로봇, 스마트 홈 등은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대중적으로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용 사례들을 가지고 효과성을 평가하기엔 이른 부분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이번 분기의 제론테크놀로지 관련 연구 중 노인의 기술 사용 의사 및 효과성 관련 주요 연구로 오설미 & 최송식(2021); 주수산나 외(2021); 조호수 & 류민호(2022)를 소개한다. 오설미 & 최송식(2011)은 기존 디지털 정보 수준이 신기술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수행한 2019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만 65세 이상 인터넷 이용 노인 607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분석을 했다. 연구 결과, 디지털 정보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기술적 수행능력에 대한 신념인 기술적 자기효능감이 상승하고, 자기효능감은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용의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디지털 정보 수준이 높을수록 이용성도가 높으며 이용성도가 높을수록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용의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주수산나, 최봄이, & 전해정(2021)은 노인의 이동성 보조 및 향상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의 기술수용태도 및 사용의도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였다. 기관생명연구윤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계획서를 토대로 만 65세 이상 노인 3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술통계분석을 진행했다. 분석에 따르면, 참가자의 71.9%가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53.9%가 이 기술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생활을 하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년층,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약하고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사용의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더 호의적인 기술 수용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사용 의도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노인의 첨단기술 이용에 대한 연구 중 스마트 홈과 관련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 홈은 기술 시스템, 자동화 프로세스, 원격 제어 기기 등을 아파트나 주택에서 사용하여 가정에서 삶의 질과 편의성을 높이고 보안을 향상시키며 연결된 원격 제어 기기를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Infineon, 2021). 백옥미, 홍석호, 이미영, & 장은하(2021)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홈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생생한 적응 경험을 탐색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대상은 정부 지원의 스마트 홈 서비스를 제공받은 초고령 지역의 독거노인 9명, 이들의 스마트 홈 서비스의 보급 및 관리에 관련된 핵심 정보 제공자 11명으로이 두 집단을 대상으로 각 2회씩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독거노인들은 더디기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스마트 홈에 적응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마트 홈 적응에 있어 학력 수준이나 연령대 수준이 중요할 것이라는 보편적인 예상과는 달리 노인 개인의 적극적 성향 여부, 기계 적응 과정에서 도움을 줄 공적·사적 인적자원의 존재 여부가 스마트 홈 적응의 관건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들에게 있어 ‘기계’보다는 ‘사람’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첨단기술인 AI 로봇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를 한 연구도 있었다. 김연미, 송미영, 양정숙, & 나현미(2022)는 AI 로봇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인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우울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실험군 17명, 대조군 18명)을 대상으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 연구를 했다. 연구결과, 실험군은 언어기능, 일상생활활동, 우울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중등도 이상 우울과 경증 우울이 감소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인지기능은 장기요양등급과, 일상생활활동은 동거가족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Annex

1. 커뮤니티 케어

(1) 서종근, 이한기, 이서윤, & 왕영민. (2021). 노인장기요양 공급 특성이 수요 유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선형패널분석을 통한 공급자의 수요자 발굴 현상 분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1(4), 8-25.

- 연구주제: 장기요양 공급 특성이라는 제도적 측면이 인정신청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대상: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군구 데이터 10년치(2010~2019년)
- 연구방법: 선형패널분석(양적연구)
- 연구결과: 시군구별 공급 특성과 인정신청 간 밀접한 관계가 관찰되었다. 매년 지역별 공급 기관 총량에 따라 인정신청 건수가 동일한 양상으로 조절되었다. 선형패널분석 결과, 공급 특성에 따라 인정신청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65세 인구와 별개로, 시군구별 재가 기관 공급량이 인정신청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입소 시설은 인정신청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기관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인원이 인정신청 증가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다

(2) 최해룡. (2021). 고령자의 지역사회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가활동과 건강상태의 순차적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76(4). 81-106

- 연구주제: 고령자의 지역사회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가활동과 건강상태의 순차적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대상: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표본 중 여가활동을 경험한 고령자 7,957명
- 연구방법: 양적연구
- 연구결과: 지역사회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 지역사회환경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여가활동의 매개효과(지역사회환경→ 여가활동→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환경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건강상태의 매개효과(지역사회환경→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환경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여가활동과 건강상태의 순차적 매개효과(지역사회환경→ 여가활동→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의 순차적 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환경이 여가활동과 건강상태를 순차적으로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이송희, & 홍승주.(2021). 서울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영국 NHS 통합돌봄 모델과의 비교.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41, 147-178.

- 연구주제: 서울형 커뮤니티케어인 서울 돌봄SOS센터 시행에 따라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HS)의 새로운 통합 돌봄모델인 ‘뉴케어모델(New Care Models)’의 시범지역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서울형 지역사회 통합돌봄모델의 운영매뉴얼 개선 및 사업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대상 및 방법: 영국의 사회적 돌봄과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 접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실시하고, 뉴케어모델의 대표적인 시범도시인 토베이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도시간 비교연구
- 연구결과: 보편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 다학제간 팀 구성과 민관연계 협력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통합돌봄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공식적·비공식적 돌봄종사자 지원 및 관리, 지역주민 및 시민의 역할 강조, 끝으로 서비스 품질 관리 위한 다양한 방식 적용 등을 제안하였다.

(4) 민소영, 임선영, 주은선, & 신서우. (2021). 무엇이 노인의 삶을 더욱 불만족스럽게 만드는가?: 주거와 돌봄의 이중결핍의 영향. *사회과학연구*, 6A(2), 133-154.

- 연구주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AIP)’의 관점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과 주거의 이중결핍이 노인의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대상: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수행된 지역주민욕구조사 자료 중 65세 이상 노인 464명
- 연구방법: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양적연구)
- 연구결과: 첫째, 돌봄결핍보다 걱정하지 못한 주거가 노인의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돌봄과 주거의 이중결핍은 제한적 수준에서 노인의 삶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결핍 자체, 그리고 돌봄결핍과 결합된 주거결핍이 돌봄결핍 이상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노인이 필요로 하는 돌봄을 적정한 주거환경 속에서 제공받도록 하는 통합적인 노인생활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5) 채지은, & 서영준.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 전·후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형평성 분석

- 연구주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를 대상으로 2018년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 전·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감경 확대 정책의 효과성을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대상: 2017년과 2019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청구자료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하여 2017년 184,355명, 2019년 285,104명을 대상

· 연구방법: 통계분석 (양적연구)

· 연구결과: 수평적 형평성 분석 결과,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이용일수와 횟수 모두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던 이용량이 감경 확대 후 형평적으로 변화하였고, 본인부담금 또한 고소득층의 부담이 감소하며 형평해진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증진을 위해 현재의 본인부담금 감경 소득 구간을 더욱 세분화함으로써 수급자 간 감경 혜택에 대한 '절벽현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수준별 본인부담률 차등책정, 상한액 차등 설정 등의 다양한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 정신건강

(1) 장의미, & 김기연. (2021). 한국 당뇨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정신건강의 관계: 주관적 계층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4), 121-144.

- 연구주제: 만 65세 이상 당뇨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주관적 계층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대상: 한국 의료패널에서 제공하는 2013년 연간데이터 73명 당뇨 노인
- 연구방법: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연구 변인들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주관적 계층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
- 연구결과: 당뇨 노인이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보고할수록 불안 및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뇨 노인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불안 및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계층인식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낮다고 평가한 당뇨 노인이 주관적 계층인식 역시 낮다고 평가할수록 불안 및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김자영. (2021). 노인의 노화불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노년학, 41(6), 1055-1072.

- 연구주제: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노인의 노화불안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대상: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사회의 사회, 심리적 불안 실태조사의 만 65세 이상 노인 1,055명
- 연구방법: 빈도 및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양적연구)
- 연구결과: 노인의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우울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화불안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3) 윤경순, & 이유진. (2022). 자녀동거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와 독거노인가구의 우울 영향요인 조사: 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 이용. 노인간호학회지, 24(1), 1-12.

- 연구주제: 본 연구는 가구유형(배우자와 동거하는 노인, 성인자녀, 독거노인)에 따라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대상: 2020년 노인실태조사 만 65세 이상 노인 10,097명 중 동거인을 묻는 문항에 '손자 . 손녀, 형제자매, 부모, 비혈연 동거인'으로 응답한 141명과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자살, 삶의 만족도'에 걸쳐 값이 있는 166명을 제외한 총 9,790명

- 연구방법: 원시자료는 통합가중치를 적용한 후, IBM SPSS/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구형태에 따른 개인요인, 건강행동요인, 정신건강요인의 차이는 Rao-Scott χ^2 test를 하였으며, 가구형태에 따른 우울 영향요인은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양적연구)
- 연구결과: 가족구조에 따른 우울증은 독거노인, 성인자녀, 배우자 순이었다($p < .001$). 성인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우울요인은 총소득, 만성질환 건수, 입원, 운동, 자살생각 등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노인의 우울요인은 취업,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건수, 병원방문, 입원, 음주, 자살생각, 경제적 지위만족도, 문화생활만족도였다. 독거노인의 취업, 주관적 건강상태, 입원, 음주, 자살생각, 문화적 삶의 만족도는 우울요인이었다($p < .05$).

(4) 최해경. (2021). 부부갈등과 자녀와의 갈등이 노인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비교. 미래사회복지연구, 12(3), 75-103.

- 연구주제: 부부갈등이 노인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하는데 노인의 성별에 주목하여 노인의 부부갈등과 우울 간 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대상: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와 옥천군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평생교육기관의 협조를 받아 유의표집으로 표본추출 하였고 65세 이상 유배우자 노인 265명 참여
- 연구방법: 자료수집방법으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대상자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에 해당하면 자기기입식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인 조사대상자는 대면적 면접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2.0을 이용하여 기술분석, t-검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양적연구)
- 연구결과: 성별에 따른 노인 우울 수준을 살펴보면 여성노인의 우울 점수는 2.45, 남성노인의 우울 점수는 3.05로 이원적 분석(bivariate analysis)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모두 포함한 다중분석 결과에서는 남성노인의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부갈등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부부갈등($\beta = .42, p < .001$)은 남성노인의 우울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여성노인의 우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 중 여성노인의 우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친구 수($\beta = -.23, p < .05$)와 자기돌봄($\beta = -.22, p < .05$)으로 나타났고, 남성노인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력($\beta = -.23, p < .05$)과 건강상태($\beta = -.29, p < .001$)였다. 즉 여성노인은 친구 수가 적을수록, 자기돌봄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남성노인은 월 소득이 낮을수록, 신체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이태호, & 허순임. (2021). 사회자본이 노인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1(4), 8-25.

- 연구주제: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구조적 요인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사회자본과 노인자살률의 관계를 250개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대상: 통계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자료 종합
- 연구방법: 기술통계(양적연구)
- 연구결과: 사회자본은 전체 연령 자살률에 비해 노인자살률에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고 참여 속성을 나타내는 투표율은 남성과 여성 노인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자살률과(-)의 관계를 보였다. 한편, 남성 노인에서는 네트워크 변수인 시민단체 종사자 수, 문화여가복지시설 수가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여성 노인의 경우는 이혼율이 자살률과(-)의 관계를 나타내 성별로 중요한 사회자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역량은 자살률을 낮출 수 있으며,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안전망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6) 정유수, 권소연, & 이영순. (2021). 베이비붐 세대의 활동적 노화가 우울, 삶의 만족도, 죽음불안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76(4), 9-33.

- 연구주제: 베이비붐 세대의 활동적 노화가 우울, 삶의 만족도, 죽음불안 및 자아통합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연구대상: 자료 수집은(주) 인바이트 패널에 설문을 의뢰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활동적 노화, 우울, 삶의 만족도, 죽음불안, 자아통합감 척도에 대해 자기보고식 설문을 2021년 5월 10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여 남녀 각 300부씩 총 600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연구방법: 첫째, 연구대상자의 성별, 결혼여부, 자녀유무, 교육수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자료의 정규성 또는 이상치를 검토하였고, 활동적 노화, 우울, 삶의 만족도, 죽음불안 및 자아통합감의 왜도 및 첨도를 통해 자료의 정상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셋째, 활동적 노화가 우울, 삶의 만족도, 죽음불안 및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양적연구)
- 연구결과: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활동적 노화의 참여, 건강, 안전요인 모두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활동적 노화의 참여, 건강, 안전요인 모두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활동적 노화의 건강, 안전요인이 죽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다섯째, 활동적 노화의 참여, 건강, 안전요인 모두 자아통합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 (7) 강동훈. (2022).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제한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 도움과 요양보호사 도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1), 545-556.
- 연구주제: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제한이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족 및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대상: 한국복지패널 15차 자료(2020년)를 기반으로, 65세 이상 노인 4,214명
 - 연구방법: 기술통계, 평균차이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조절효과분석을 실시(양적연구)
 - 연구결과: 첫째,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제한은 노인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제한과 노인의 우울 간에 가족의 도움은 노인의 우울을 완화하는 조절변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제한과 노인의 우울 간에 요양보호사의 도움은 노인의 우울을 완화하는 조절변수로 기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제론테크놀로지

(1) 오설미, & 최송식. (2021). 노인의 디지털 정보수준이 신기술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 자기효능감과 이용성과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6(4). 137-170

- 연구주제: 기존의 디지털 정보수준이 신기술 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 자기효능감과 이용성과의 매개변수의 영향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노인이 새롭게 등장하는 AI와 같은 정보기술로 인한 정보격차 완화를 위한 함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수행한 2019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만 65세 이상 인터넷 이용 노인 607명
- 연구방법: 양적연구
- 연구결과: 첫째, 기술적 자기효능감과 신기술 이용의사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경험과 e-Learning 자기효능감, e-Learning 사용의도 간의 관계를 밝힌 김수원, 오성욱(2005)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디지털 정보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기술적 수행능력에 대한 신념인 기술적 자기효능감이 상승하고, 정보기술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는 기술적 자기효능감은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용의사에도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디지털 정보수준이 이용성과를 거쳐 신기술 이용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타난 결과는 이용성과와 관련한 선행연구들로 추측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월석 외, 2013; 공성배, 2014; 엄사랑 외, 2020; 이관섭 외, 2020; 송유진 외, 2021). 디지털 정보수준이 높을수록 이용성과가 높으며 이러한 이용성과가 높을수록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용의사에도 정적인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다. 즉 디지털 정보수준을 통한 개인적 및 사회적 이용성과가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동기로 작용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정보수준과 신기술 이용의사에 관한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술적 자기효능감 및 이용성과의 각각의 매개효과 및 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응용한 인지된 이용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의 매개효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Davis, 1986/1989). 즉, 새로운 정보기술이 쉽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뿐만 아니라 실제의 이용결과들도 정보기술의 수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기존의 기술사용수준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백옥미, 홍석호, 이미영, & 장은하.(2021). 농촌 독거노인의 스마트 홈 활용 경험.

보건사회연구. 41(4), 8-25.

- 연구주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홈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생생한 적응 경험을 탐색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대상: 정부 지원의 스마트 홈 서비스를 제공받은 초고령 지역의 독거노인 9명, 이들의 스마트 홈 서비스의 보급 및 관리에 관련된 핵심 정보 제공자 11명
- 연구방법: 각 대상 별 2회 포커스 그룹 인터뷰(질적연구)
- 연구결과: 독거노인들은 더디지만 사람의 도움으로 스마트 홈에 적응해가고 있다.

(3) 김연미, 송미영, 양정숙, & 나현미.(2022). AI 로봇 통합관리프로그램이 재가노인의 인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우울에 미치는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20(2), 511-523.

- 연구주제: AI 로봇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인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우울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실험군 17명, 대조군 18명)
- 연구방법: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 실험 설계(질적연구)
- 연구결과: 실험군은 언어기능, 일상생활활동, 우울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중등도 이상 우울과 경증 우울이 감소되는 결과를 나타났다. 인지기능은 장기요양등급과, 일상생활활동은 동거가족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노인돌봄 현장에 비대면 방식의 돌봄기술을 도입한다면, 노인의 인지기능훈련 및 우울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주수산나, 최봄이, & 전해정. (2021). 노인의 웨어러블 로봇에 관한 기술수용태도 및 기술사용의향 관련 요인. 한국융합과학회지(구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지), 10(5), 289-309.

- 연구주제: 본 연구는 노인의 이동성 향상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의 기술수용태도 및 사용의도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대상: 기관생명연구윤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계획서를 토대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만 65세 이상 노인 310명
- 연구방법: 기술통계분석(양적연구)
- 연구결과: 기술통계에 따르면 참가자의 71.9%가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53.9%가 이 기술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생활을 하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년층,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 허약하고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사용의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더 호의적인 기술 수용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사용 의도가 있다.